

# 牛峯李氏大宗報

제 9 호

發行人兼編輯人：李 隨 寧  
 發 行 處：牛峯李氏大宗會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8의 2  
 印 刷 處：서라벌印刷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198번지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 陶庵선조의 四禮便覽 한글판으로 발간

### 龍仁郡에서 도암묘소 지역을 지방유적으로 고시

#### 수령회장 담화문 발표 150년만에 우봉이씨 공지회복



隨寧 회장

일찍이 동방예의의 나라로 알려진 우리에게 관혼상제인 四禮를 우리 선조이신 도암공께서 예제의 典範으로 「사례편람」을 편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에 준하여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실로 집안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번 대종회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문중 부회장인 병주박사를 통해 사례편람을 국역판으로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은 150년만의 쾌사로 생각되며 선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9월18일 종무위원회에서 수령회장은 이러한 뜻을 전일가에게 알리고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한 관계일가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사례편람 발간에 즈음

한 담화를 발표했다.

수령회장은 담화문에서 그동안 대종회의 활성화를 꾀해 청장년회를 결성해서 선조 및 집안 발전을 위해

선조 묘소 순례 사업을 비롯하여 「도암전서」 「타우유고」 「화친집」 「은송당집」 「우봉이문추원록」 등 일가들이 사비를 드려 영

### 대전 범세 5대조 燕行日錄 발건

#### 당시 중국수교 관계밝혀

조선조 칠종 때 교수를 지낸 月坡(丙圭)공의 燕行日錄을 5대손인 범세씨가 간직하고 있다고 대전화수회(간사 범세)에서 대종회에 알려왔다.

이 연행일록은 월파공이 26세때인 1873년 10월에 서울을 출발 1874년3월 귀

국할 때까지의 행적을 일기체(예서체)로 기록한 것으로 당시의 우리의 지리 풍습은 물론 중국과의 정치 외교적 입장과 공의 학자로서의 행장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문집으로 알려져 있다.

인본 또는 인쇄로 출판하여 가문을 더욱 빛낸바 이에 힘입어 대종회가 주관하여 「국역 사례편람」의 간행을 촉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8일 용인군에서는 도암(이재)공 묘소지역을 지방유적보존 조례 제5조에 의하여 92-31호 지방유적으로 고시되었다고 통보해 왔다.

그런데 용인군 이동면 천리에는 도암공의 귀락당(만성), 판결사공(유겸), 충헌공(숙), 호조참판(핵)공 판서공(만창) 등 조선조 명신현관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국역된 사례편람 책표지	도암 이씨 선생원저	국역 사례편람 전	안동 김응현(龜翁)음
--------------	------------	-----------	-------------

서울대학교 동창회보(1992. 2. 1차)에 의하면 基寧(78·학술원 회원) 牟壽美(서울대 식품영양학) 부부교수가 고양군 신도읍 향동2리 소유임야 2만6천평을 몸담았던 모교 발전에 기금조로 기부했다한다.

고양군 향동2리에 위치한 이 임야는 일명 메골산으로 牛峯李家의 감찰공(折)을 비롯한 보진암공(之信·황해도 관찰사) 노암공(劬)의 선조 여러분이 잠든 곳으로 이곳은 1715년에 세워진 보진암공의 신도비와 묘소가 고양군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 임야는 당초 一堂공 집안의 소유였던 것이 1957년 7월 6일자에 基寧박사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재 소송중) 몇 해 전 두계박사가 살아 계실때 부터 대종회의 종무위원들이 감찰공 묘소지역의 보존을 위하여 묘소 지역만을 대종회 명의로 이전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 한적이 있었다. 이때 우리가 보존하면 안심이 안되고 대종회에서 소유해야만이 보존이 가능하단 말이냐라고 했다는 이야기에 잊어버린채 그 후 이야기만 하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물론, 두 분의 속사정은 알겠으나 어쨌든 임야가 서울대학교 발전 기금조로

기부되었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것은 어느 개인에게 팔아넘긴 것도 아니요 옥영에 유효하게 쓰여 지게 된다는 데서 개인으로서서는 보람있는 일이요 문중에서도 자랑도 될 수 있다. 참으로 두 분의 뜻은 대의 명분이 있는 처사로서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할 대견한 일을 했다는데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문중에서 감찰공하면 대사간공(承寧)과 호조판서공(承健)의 두아드님을 낳셨고

왔다. 물론 이 묘역이 하루 아침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종회 소유만으로 보존될 수 있는 과거의 뜻있는 종무위원들의 판단이 닭 쫓던 개처럼 아쉬움만 남게 되었다는데 마음이 쓸쓸해진다.

과거 우봉일가의 선조묘가 이장되기는 크게 나누어 참판공(서울 개봉동), 의열공(황해 금천 도리촌), 종성군(경기 파주),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문중의 일은 아직까지 유교전통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네 풍습이다.

최근 우봉일가는 조상을 위하는 일이 각 문중별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몇 년 전에는 경북 상주에서는 참판공문중의 萬寧씨[종무위원·光-식풍(주)사장]의 주선으로 성당공(憲九) 효행을 재조명

르도록 선대의 문집(화친집)을 자비로 출판하여 집안에서는 물론, 한학계에 서까지 칭찬이 자자하였다.

바라건대 이처럼 조상의 유적과 유산의 보전은 우리네 미풍양속으로서 자손들의 발전적 척도가 된다.

이번 고양군 향동 2리의 감찰공묘역의 경우, 법적으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몇 백년을 두고 지켜 온 묘역이 열려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감찰공 문중도 책임이 있고 또 그동안 일가간의 대화하나 없이 지냈다는 것부터가 공동책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뜻에서 이번 문제는 더 늦기전에 당사자가 선조의 묘역임을 생각지 못했다면 보존요청을 추가로 약속해두도록 건의하고 한편 서울대학교측은 명가의 묘역인 지방문화재란 점을 감안한 보존대책을 세워 각별히 취급해 주었으면 한다.

끝으로 부디 상주의 일가나 옥천군의 일가가 조상의 유적을 기리고 또 문중을 발간하여 칭찬받는 일 같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일도 가룩한 뜻이 부담없는 아쉬운 여운이 남지 않기를 바란다(丙泰주간)

논 단

## 6백년 내력은 사라지는가

-아쉬운 여운을 남긴 재산기부-

暇湖堂(諱)의 손자와 보진암공 등의 증손, 그리고 만회당, 타우공, 의정공, 농재공, 도암공, 문정공, 문숙공 등 당대의 많은 명신현관을 길러내어 우봉이씨의 가문을 빛내게한 선조이시다.

연 전 감찰공 자손들은 이러한 뜻을 다시 기리기 위해 이곳에 비석을 세우고 해마다 묘역을 가꾸워 자손들의 교육장으로, 또 훌륭한 선조의 넋을 되새겨볼 수 있는 곳으로 삼아

원외랑공(경기 양주 해동), 감찰공(경기 고양 신도), 대사간공(경기 광주 구천), 부사랑공(황해 금천 백번우), 지평공(경기 연천 홍양) 중 대사간공은 도시계획에 의거 구천면이 서울 천호동으로 편입되어 개발지역이 됨에 따라 후손들이 사는 강원도 횡성군 묵계리로, 사직공은 충남 보령군 미산면으로 이장한 바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한다.

하는 빗돌과 기념관을 세웠으며, 지난해 9월에는 충북 옥천의 의열공 문중에서 瑤寧(82 진대전화수회 회장)씨를 중심으로 화친회라 칭하는 중가(장손 범세)를 일가들이 1천2백여 만원을 모금해서 드러 다시 재건해 50여 가구 일가들이 모여 회관처럼 쓸 수 있도록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건녕[종무위원·영보(주)사장]씨는 진통과 집안의 법도를 자손들이 따

# 덕수궁서 일가친목다져

## '91대중회 4백여명 일가가 모여

지난 11월3일 오전 10시 우봉이씨 대중회 1991년도 정기총회가 덕수궁에서 400여 명의 일가가 모인 가운데 개막되었다.

예년에 비해 두배가 넘는 일가들이 모인 이날 총회에는 수녕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일가가 157명, 지방일가가 131명이 참석하여 서로 상면인사를 나누었다.

수녕회장은 인사말에서 일가들의 총회 참석인원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제하고 관심도가 높은 만큼 대중회에서 뒷받침을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우리일가가 이렇게 대중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전통있는 집안 조상들의 훌륭한 내력의 영향과 그것을 잊지않고 지켜온 일가들의 바른생활에서 이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일년간 술선수범하여 대중회발전이 크게 활약한 丙擘박사를 비롯하여 청장년회 임원과 중무위원 소개 그리고 대중보를 편집·발행하고 있는 병태위원<sup>5</sup>에 대한 격려소개가 있었다.

이어 무학도유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갑녕감사의 감사보고와 "우봉이문후원록"발간에 대한 병주박사의 집안가문에 대한 강연, 華泉集 영인본 발간에 즈음한 건녕위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서 중무위원 유갑명에게 추천의례와 일가들의 경품권 추천이 가족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날 총회는 회비납부일 기준으로 288명, 가족인원수를 포함한 실제인원은 400여명에 달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대중회 운영을 위해 특별찬조한 일가는 다음과 같다.

### 찬 조 금 명 세 서

이름	찬 조 내 역	이름	찬 조 내 역
수만	1,000,000	무식	100,000
닝녕	300,000	무명	100,000
병순	200,000	병준	100,000
청녕	200,000	병덕	50,000
근석	200,000	병인	50,000
형녕	200,000	창무	아세아 50,000
성도	100,000	세심공과	50,000
기녕	100,000	해녕	50,000
병철	100,000	철경	30,000
국녕	100,000	병태	30,000
병복	100,000	병계	20,000
준창	100,000	무계	4,030,000
세무	100,000	무탁	탁상시계 200개
병세	100,000	병택	가 훈 3점
승병	100,000	병길	영어사전 5권
병무	100,000	병준	양 말 20상자
병무	100,000	병덕	헤드폰 5개
무학	100,000		



元茂감사 별세

지난 9월 14일 元茂 대중회 감사가 신병으로 6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충남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에서 나서 통일상가(주) 대표이사, 盛元企業(주) 대표이사를 지낸 실업인으로 대중회 감사까지 맡아 일가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문복공(翽)의 직손으로 타우유고집을 사비로 발간하여 집안의 긍지를 심어 주는데 앞장섰다.

시향때는 서울 문경·형성·의성 등지에서 일가들 모여 친목돈독

시향때는 서울·문경·형성·의성 등지에서 하루 또는 이틀전에 일가들이 와 뭉고 시향을 올렸다.

문경공 묘역에 관리를 위해 주어진 자산은 임야가 80정보, 논 2,000평, 밭 7일 가리가 묘역근처 산야로 이형성되어 있다. (丙)

묘소가 틀림없었다. 당시 종친회장인 一堂은 각문중에 통보하고 이해 9월에 봉분을 다시 쌓고 제사를 지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며 경하했다고 문경공비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시조의 묘소를 700여년만에 다시 찾게 된 것이다.

# 馬踏洞 시조 文景公墓소가 가는 길

茂學도유사 집념으로 확인 묘소관리자산 임야 80정보는 2천평밭 7일 가리  
개성에서 23 km 화장산 넘어 와룡대 거쳐 마답리에 이른다

그후 一堂이 세상을 떠나자 이왕직 시사장(비서직)이었던 恒九(一堂長男)공이 종친회장직을 맡게 되어 계속 밭돌과 묘소를 가꾸게 되었다.

이때가 1928년3월이었다.

### 1928년 3월 밭돌과 묘소조성

당시 종친회는 정성을 다해 시조의 묘소를 가꾸고 참관공 문중의 丙擘공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임야와 전답을 마련. 8·15 해방후 월남할때까지 그는 관리하고 있었다.

대중회에서는 그동안 6·25 전쟁이 일어나자 휴전선으로 왕래가 끊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언 47년이 흘러간 긴 세월속에서 시조묘소에 대한 관심조차 잊고 있었다. 그

### 시조묘소관리인 丙擘공 사촌찾아

대중회의 활동이 해가 거듭할수록 활발해지고 있어 뜻있는 일가들로부터 참여의식을 더 한층 갖게 하고 있다.

급년 한 해만도 무학도유사를 비롯하여 청장년회는 선조묘소의 별초작업을 조직적으로 실시 지난 5월에는 아산의 충익공(호준)묘소에 이어 8월에는 용인 선조묘소의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 대중회는 병주박사 주관하에 사례편람 전권을 우리말로 풀어 발간하게 되었다.

이외에 대권 논산동지에 산재해 살고 있는 지방일가들은 선대에대한 문집의 발굴과 비석건립사업 등의 활발한 활동이 일고 있어 우봉이가의 발전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급년의 수확으로 꺾을 수 있는 사업은 해가 갈수록 시조묘소가 실전될 것을 염려하여 그동안 정확한 위치를 파악, 통일이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서둘러 왔었는데 수소문 끝에 8·15 해방당시까지 시조묘소를 관리하고 있던 병설(丙擘 1973년 작고)씨의 자손들을 찾게 되어 시조묘소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환경을 파악하게 되었다.

### 한민족의 대표적 전통가문지너

우봉 이씨 시조 文景公(公擘)은 서기 1147(고려조 의종1)에 나서 1210년(희종6)에 향년 63세를 일기로 한평생을 보냈다.

당시 고려는 왕실의 부패로 방방곡곡에서 민난이 성행하던 때로 특히 경주 지방에서 신라부흥을 앞세우고 일어난 폭동을 평정하기 위해 왕명을 받고 李公擘장군이 출정하였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찾을 수 있다.(한국사 진당학회·중세편 p492 참조)

우봉이씨는 800여년간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혈연의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가문으로 순수하게 이어온 한민족의 대표적 전통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시조의 묘소는 세보의 기록만으로 이어지고 있었을 뿐, 찾지 못하다가 1925년 도굴군에 의해 지석을 발견 경기도 장단군에 살고 있는 후손이 확인 후 서울의 종친회(회장 完用)에 알려와 확인되어 복원사업이 시작되었다. 발굴된 장소가 장단군 소남면 마답동으로 이곳은 고려조 당시 금천군에 딸린 우봉현 도리촌이어서 집안의 家乘과 지리책을 고찰할 때 시조 문경공의

# 대중회 운영 활성화 방안 실현

## 중무위원 10명 위촉

지난 2월14일, 1992년도 제1회 중무위원회가 수녕회장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의된 안건은 그동안 대중회에서 계획하여 학도유사가 추진한 10명의 중무위원 소개인사와 도암공의 사례편람책자 발간으로, 새로 중무위원에

위촉된 雲九(성균관대 교수·중국고대철학), 復寧(전 단국대학부속중학교교감) 應衡(상업은행 김사부역) 茂榮(농업·전직교사) 成度(전자업) 範瑞(전 전신전화국 실장·대전화수회 간사), 起淵(範자·회사인원) 樂寧(義仁·덕성전기 대표)제위원의 취임

인사와 그 외에 위원중 참석지 못한 學九(양친구 목동 731-3) 定寧(서초구 반포동 172) 茂春(청량리 전화국)등 여러위원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 도암공 사례편람책자 발행에 대한 병주박사의 편찬계획의 보고와 예산 번역자 선정 등을 논의했다.

사례편람 발간은 발간한다는 기본계획만을 결정하고 다음 중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무학도유사는 시조 묘역 확인 복사자료를 배부, 자손들에게 지금 이북방(장단군 소남면 유덕리)에 위치한 시조 묘역을 알려주는데 관심을 갖도록 당부했다.

이에 앞서 수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새로운 중무위원 열분을 영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대중회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하고 도유사의 헌신적 활동으로 대중회 업무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말했다.

### 사례편람발간 결의 500부 한정판으로

지난 3월13일 '92 제2차 중무위원회가 평화합동법률 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수녕회장과 병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학도유사 사회로 시작된 회의에서 그동안 검토되어 오던 도암공의 「사례편람」역간사업에 대한 내용을 병주부회장을 통해 들었다.

먼저 무학도유사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병주부회장이 발표했다.

병주부회장은 사례편람은 원본을 중심으로 현대 생활에 맞도록 역간함으로써 선조가 이룩한 업적을 다시 한번 자손들은 물론, 사례편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몇 출판사를 통해 시장조사도 실시했다고 말했다.

고전 전문출판사인 보경문화사와 양우당에서 분석한 결과 책자가 발행되었을 때 판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지만 대중회에서 500부정도 보급해준다면 1000부를 기준으로 양우당에서 발간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녕회장은 현재 기금으로 출판까지 자비로 발간한다는 것은 대중회 기금운영에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태위원은 출판은 출판사에 일임하여 대중회는 번역비만을 지원하여 의무를 수행했다는데서 그쳐 수입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결과 일단 역간을 병주부회장이 전문학자(동국대학교 이종찬교수)에게 의뢰하여 우선 번역한다는

의결과 인쇄출판은 추후 대상출판사를 선정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한편, 무학도유사의 제의에 따라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원부 감사와 중무중무위원 그리고 지난 3월초 화재를 당한 병천 중무위원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도록 가결하였다.

## 竹亭書院에 귀락당 선조모서 석전박사 영암 방문 결정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1992년도 제3기 중무위원회가 이수녕(법률사무소) 회장사무실에서 회장을 비롯한 14명의 중무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개막되었다.

이날 茂學도유사는 4월 25일 청장년회가 주최한 선조묘순례(아산 鎬俊)행사에 대한 보고와 사례편람 국역사업보고 그리고 시조묘역확인 면담에 대한 결과보고를 했다.

특히, 사례편람 국역책자 발간 사업은 그동안 작업이 계획되고 진행되어 400여매의 분량에 달하여 원문까지 포함 발행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찰공묘역을 포함한 회전에 위치한 산야 기금관계에 대해서는 기금박사와 서울대학측이 구두로 이루어진것으로 감찰공 문중이 희망하는 묘역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겠다고 말했다고 병위원이 전했다.

이 묘역이 포함된 산야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처리되기전 분명그림의 서봉회장과 상의, 받아줄 것을 희망했으나 서봉께서 사양해서 서울대학교에 기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 임야가 현재 집안간의 소송이 제기(할매특약 해지관계)되고 있어 (말소시키지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것이 해결되어야 완전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 집안간 소송 중

### 감찰공 묘역 제외 건의에 基寧박사 허락

기녕 박사는 현재 300만 원을 드러 수속처리중이며 감찰공묘역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걱정할 문제가 안되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어 위원들의 집안 상호 소식전하기에 있어 건영위원은 대중회에 문의해온 영암의 竹亭書院(유사 박유복)측에서 귀락당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다른 집안의 자손들은 때마다 참례하나 우봉이씨 집안만 참석치않고 있다고 전해왔다는 소식에 대중회는 병

주박사가 영암에 가서 현지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용인의 도암공 묘소에 있던 나무를 안동김씨측에서 자기집안에 우환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없이 잘라버린 일이 있어 종선인 중무씨로 하여금 고발 조치하도록 처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 大宗報게시판

**등정** ▲**淸寧**(북한연구소 서물지사장) 11.20 북한연구소 20주년기념식에서 감사패수상(케피탈호텔) ▲**중무위원회** 및 청장년회 개최(11.29.) 종로한일관 3층홀 ▲**讚九** 국회의원 특별찬조 ▲**丙曠**(동국대 명예교수·부회장) 제5회 春江賞(조동식박사 기념사업회) 수상(학술부문)12.7,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讚九**(국회의원)청장년회 초청 신년하례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 142 자택에서(1. 2) ▲**丙朝**(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 국제법학회 회장에 선출(2. 12) 취임 부회장 김영기(명지대) 홍성화(건국대)교수가 뽑혔다. ▲**丙泰**(대중보 주간) 1.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의 개편으로 공무원직을 떠나 국방군사연구소 신설과 함께 선임연구원으로 취임 ▲**정장년회**(회장 낙영) 4.25 아산 충익공묘소 순방. ▲**昌茂**(청장년회·제일은행 비서실장) 취임 인사 ▲**희무**(청장년회·본전복집) 전화 765-1660 인사차.

**결혼** 昇寧(중무위원) 장남 黃茂均(李京林)(成老本여사 장녀)양 무역센터3층 공항터미널예식장에서(92. 4. 6 오전11시) 결혼식 거행.

**회합** 장녕(丙錫 중무위원 장남) 모친(金明順)여사: 92. 6. 3. 12:00 여의도 금강빌딩 3층 해진부페에서 피로연.

**부고** 甲寧(감사·동대문구회의원) 12.30 부친상

**행사** 도암선조묘소 참배 및 멀초행사 청장년회(회장 낙영) 1992. 8. 23



▶ 1991년도 대중회가 덕수궁에서 개최되었다.

▶ 해마다 일가들의 대중회 참가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 선조 묘소 단체로 가꾸

### 청장년회 주최 용인묘역서

지난 8월23일 청장년회(회장 樂寧)가 주최한 용인군 이동면 천리 선조묘소 사조작업에 30여명의 일가가 참석해서 대성황리액 귀락당공(만성), 만회당공(유겸) 일휴정공(숙), 호조판서공(만창) 그리고 집안의 자랑인 도암공(재) 선조의 묘소를 가꾸었다.

이날 석전(병주)박사를 비롯해서 한구(성균관대학교수) 병천, 병수(중북), 병남 무학도유사 건영위원 등 각 문중에서 참석해 일가들의 두터운 정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이날 무학도유사는 靑莊館(李德懋)의 靑莊館全書 권50에 게재된 도암강학한전을 소개하는 열의를 보여 자손들에게 선조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날 소개된 내용은 도암공이 한천서원에서 강의 할때 도암의 위풍과 당시 학생들의 기풍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소개했다.

완산공이 본 한천서원의 인상은 다음과 같이 비쳤

다. 「도암이 한천에서 講學할 때 매일 이른 아침 여러 학생들은 관대를 갖추고 정원 느티나무 아래에 모여 서로 인사한다. 선생께서 사당에서 참배하고 나가 자리할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가 비로서 당(堂)에 오른다.

선생은 이때 목청을 높여 「義理之心」이 잠깐이라도 없으면 人道가 멸식되느니라」하고 3번 외면 학생들은 공손하게 말씀을 듣는다. 그후 비로서 소학·시경을 차례로 강의하고 시간이 끝나면 각자가 응용·대학·논어·맹자 그리고 염락(송나라 성리학)의 여러책을 공부한다.

강학이 파하게되면 그날 배운 내용을 각자가 정리하여 선생에게 올리고 선생은 손수 교정하시고 잘못을 깨워주시나 한천의 강학은 매일 이와 같다.」

이날 용인의 빌초작업은 예정되도록 무사히 마치고 귀경하였다.

집안력

우리 始祖 文景公에 관한  
고려 李奎報의 <贈給事中李公靖>詩 譯解

丙 疇  
(부회장 · 東國大 名譽教授)

우리 선조이신 금자광록  
대부 문하시중 삼성부원군  
중 삼주백 시 문경(諱公  
靖)(1137~1212)에 관해서  
는, 그 정 1품의 높은 관직  
에 비겨 역사적인 기록이  
적어, 그 사적을 상고할 바  
가 부실해서, 매우 안쓰러  
움은 모름지기 우리 종친  
간의 공통된 아쉬움이었  
다.

그래서 우리 우봉 이문  
의 구보(舊譜)로 전해오는  
《명위보》(明衛譜)에 전하  
는 묘지(墓誌)와, 경기도  
장단(長湍)에 사는 종친  
(弼寧)이 도굴꾼에게서 찾  
은 지식(誌石)으로 말미암  
아서, 차마 실전되었던 묘  
소를 찾아 개봉했지만, 지  
금은 휴전선 북쪽이라, 시  
향조차 망배로 올리는 처  
지여서 안타까운 감회 감  
출 길 없고, 그  
묘비는 1928년 3월  
그 경위를 밝혔을  
따름이다. 그런데,  
지난 6월14일 대종  
회도유사(茂學)와  
종무위원(健寧 ·  
丙天)의 노력으로  
고려조의 대료격인  
시문학자인 백운(白  
雲)이규보(李奎報  
: 1168 ~ 1241)가  
우리 시조 문경공께

매, 국정을 총괄하는 문하  
성에 딸린 중 4품의 관직이  
다. 임금의 자문관으로 조  
칙(詔勅)이나, 또는 임금  
의 잘못을 바로잡게 하는  
간관(諫官)이다. 이때 이  
규보는 문하성 중 6품인 정  
언(正言)이었다.

이 율시는 우리 문경공  
께서 이 벼슬에 계실 때이  
니, 같은 문하성의 상하관  
의 사이였다. 그런데, 우리  
시조공의 함자를 잘못 읽  
어 “贈給事中 李公靖”에서  
“公”자를 경칭으로 풀이하  
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곧  
“贈”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이는 당나라 장군이  
정(李靖)으로 속단해서이  
다.

제1연(起聯)의 철간(鐵  
幹)은 무쇠 기둥처럼 기골  
이 장대한데다 위엄이 대

문경공의 웅장한 힘을 산  
을 당겨서 일어나는 위력  
이라는 뜻이고, 바깥쪽의  
금호(金虎)는 황금빛의 호  
랑이를 수놓은 장군의 신  
표(信標)의 부월(符璽 · 玉  
節)인 장군기로, 그 웅장한  
정기(旌旗)가 번개처럼 내  
달는 시조공의 당당한 기  
세를 뜻한다.

제3연(頸聯)의 ‘간액’  
(諫掖)은 사간원(司諫院)  
이 대궐 정문 좌우에 자리  
한 문하성에 있어, 거드랑  
의 대궐이라 해서 액궁(掖  
宮 · 掖垣)이라는 때, 당나  
라 태종(太宗)때, 금사중  
인 장현소(張玄素)가 임금  
이 낙양(洛陽)에 궁전을  
수축하려 하자, 극력으로  
하소(諫)해서 드디어 막은  
고사에서, 우리 문경공의  
간원에서의 업적을 장현소

금사중 이공정에게(贈給事中 李公靖)

이 규 보 (李 奎 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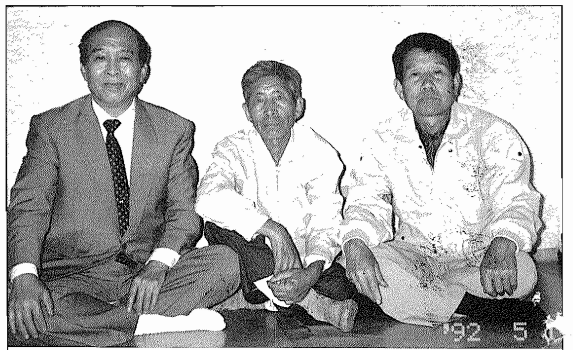
鐵幹	稜稜	萬丈	孤	무쇠같은	능름한	만장	기골	호젓하고
令狐	雙美	一生	俱	영호의	부자처럼	세상을	함께	하였네.
仙龜	壯力	扶山	起	선오의	굉장한	힘	산을	당겨
金虎	雄精	叱電	驅	금호의	굳센	정기	번개를	몰아치는
諫掖	共稱	張給	事	간원에선	모두가	장급사	를	함께
將壇	兼作	李金	吾	장수로서	이금으로	아울러	칭송을	한다.
天池	潤風	恩波	瀾	봉황지의	은총	입어	그	은덕
餘潤	能滲	漚	無	남은	해택	학철의	고기까지	구할

단해서, 능름한 만장의 기  
세라고 했는데, 끝의 ‘고’  
(狐)자는 하도 우뚝해서 고  
고하다는 다짐으로, 대가  
의 숨씨에 값한다. 그래서  
바깥쪽에 《당서》(唐書) <  
열전>에 돋보인 재상 영호  
초(令狐楚)와, 그의 아들  
영호도(令狐綯)의 부자에  
비겨서 칭송했다. 그들은  
벼슬도 같은 재상이라서,  
우리 시조 문경공과 아드  
님이신 의열공(義烈公 · 李  
希晟 : ? ~ 1251)과 나란히  
비기면서 ‘쌍미’(雙尾)로  
일생구(一生俱)라는 부러  
움의 찬사를 보냈다. 의열  
공은 동도(東都 · 경주)만  
관(1190)을 평정해서 못나  
는 정1품인 문하시중 평장  
사(平章事)로, 재상에 올  
랐기 때문에 맞추어 ‘쌍미’  
라 했다.

제2연(領聯)의 선오(仙  
龜)는 신선(三神山)을 지고 있  
는데, 옛태고시대의 여제  
(女帝)인 여와씨(女媧氏)  
가, 그 네 발을 잘라서 천  
지 사방을 세웠다는 전설  
이 사마천(司馬遷)의 《사  
기(史記)》에 보인다. 이는

에 비기었고, 바깥쪽의 ‘장  
단’(將壇)은 장군의 반열  
(班列)로서, 당나라 명장  
이정(李靖)이 병법에 능  
해, 태종과 태종을 도와 큰  
공을 세워서, 우리 문경공  
을 바로 이정 장군에 비기  
었다. 공교롭게도 문경공  
의 휘(諱)인 ‘공정’(公靖)  
이 비슷해서다. 그리고 바  
깥쪽의 금오(金吾)는 불길  
함을 막는 새의 이름으로,  
임금을 호위하는 친위대장  
을 말하니, 당나라 이정 장  
군만 아니라, 우리 문경공  
께서 병법에 능한 친위대  
장이어서 곧바로 ‘이금오’  
라고 했다.

끝으로 제4연(結聯)의  
‘천지’(天池)는 대궐 앞 문  
하성의 봉황지(鳳凰池)를  
말하며, 임금의 은총을 크  
게 입어 ‘은파환’(恩波瀾)  
이 개 했고, 바깥쪽의 학철  
(漚)은 수레바퀴가 지나  
간 자국에 고인 물에서 팔  
딱거리는 붕어를 말하니,  
매우 다급한 경지를 이름  
으로, 《장자(莊子)》에서의  
고사 학철부어(漚鰓鮒魚)  
의 전용이다. 곧, 우리 문  
경공의 위력이 위급준망의



지금은 미수복지구로 되어 있는 경기도 長湍郡 小南面 有德里 馬踏洞에서 9살 때부터 22세까지 13년간 선조묘소를 지켜온 八寧(69. 아산군 屯浦面 館岱里 가운데)씨를 茂學도유사가 만났다.



馬踏洞 가는 길

芝 村

開城에서 화장산 고개를 넘어  
와룡대까지 40리,

그리고  
큰 개울을 지나 마대비고개까지 7마장,

다시 고개를 넘으면  
별봉 덕베기터 건너편에  
문경공 묘소가 보인다.

묘소앞 비탈엔 많은 밤나무가 경계를 이루고,  
그 아래 쪽  
향나무에 덮혀 있는  
들로 쌓아 만든 우물은  
추운 겨울에도 감이 모락 모락 난다는  
마답동 마을의 빨래터이다.

그 주변  
수 구루의 대추나무가  
마을의 정취를 한층 더 돋구워준다.

150평 넓은 묘소앞에 서면  
오른쪽에 다섯 자 높이의 갓을 쓴 오석의 비와  
양 옆으로 망주석석이 서 있다.

金紫光祿大夫 門下侍中 峯城府院君 贈三州伯  
諡 文景公 李公 諱公靖之墓  
配 利川徐氏

1925년 봄,  
옛 무덤을 찾아  
새롭게 단장했다는 비문 그대로  
흐느껴 감격하고 기뻐하며 경하한다.

— 八寧씨의 追憶을 더듬어서 —

처지를 구원해서, 국세를  
바로잡고 남는다는 찬양이  
다. 특히 끝의 ‘무’(無)자  
의 마무리는 묘한 휘감이  
다. 황용 ‘학철어’(漚鰓魚)  
로 쉽게 쓰기 쉬우나, 역시  
대가 이규보의 높으신 솜  
씨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중급사중  
이공정>의 율시는 우리 시  
조공의 기골의 장대함과,  
그 아드님의 의열공까지 크  
게 헌달해서, 국가의 동량  
으로 부자(父子)가 나란한  
당나라 재상 영호초 부자  
에 비교, 문경공의 기세는  
태산을 잡아당길 정도이  
고, 장군의 병졸 다루는 위  
세는 번개처럼 득달해서  
대적할 상대가 없는데다,

일단 문하성 간원에서는  
임금의 잘못을 극간하는  
의기가 당나라 장현소와  
같고, 병졸 거느려 통솔함  
은 당나라 명장 이정과 같  
다고, 아예 ‘이금오’라고  
기리었다. 끝으로 문경공  
은 문하성의 봉황지에선  
임금의 은총을 두루 입어,  
그 여력은 학철(漚)의  
붕어처럼 도탄에 빠진 민  
생을 모조리 구원하고 남  
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으로 미루어 이 작  
품은 우리 우봉이문으로서  
는 시조 문경공에 관한 객  
관적인 유일한 자료인만큼,  
마땅히 널리 익혀 자손  
들에게 두루 가르쳐야 할  
귀중한 문헌이라 하겠다.

철언율시는 평성 우운  
(虞韻)인 ‘狐 · 俱 · 驅 · 吾  
· 無’로 압운되었다. 우선  
제목의 ‘금사중’은 고려